

# 東 歐 紀 行

Travels of East Europe

崔昌奎/건축사사무소 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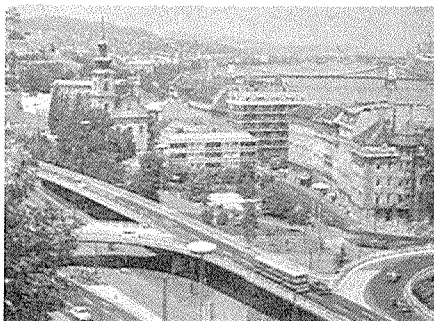
by Choi, Chang-Kyu

## ◆ 헝가리

8월 14일(火) 쾌청. 아침 11시 15분에 도착해서 Stadion호텔에 투숙했다. Stadion호텔은 스포츠센터 부근에 있어 6층의 現代式 建築이 유고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호화로웠고, 완벽한 西歐式 호텔이었다. 어쩌면 같은 共産國家이고 이웃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될 정도로 유고에 비하면 헝가리는 生氣가 넘치고 國民들의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요 관광객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매점에서 지도를 살펴보고 택시를 잡아 변화가로 갔다. 과연 서베를린이나 파리에 못지 않은 분위기이다.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저 유명한 民族音樂家 리스트를 모른다는 점이고 '동상은 어디에 있느냐'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리스트는 우리 東洋에서 헝가리 사람들보다 더 알려지고 그의 音樂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즐긴다는 것인데 어쩌된 일인가?

집시음악과 포도주로 알려진 東洋民族의 나라 헝가리. 배가 고파서 國名을 헝가리라고 했는가? 그들은 "지구를 神의 모자라고 한다면 헝가리는 그 모자에 장식한 꽃"이란 뜻이라고 한다. 地政學上 그 위치가 이웃 오스트리아, 西獨 뮌헨 등에 가까와서 가장 먼저 自由의 물결이 들어온 나라 중의 하나이고 그 언제인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란, 宗主國 蘇聯에 항거할 때 부다페스트에서도 義學가 일어나서 全世界를 놀라게 하고 그 당시의 新聞엔 어린 學生들까지도 蘇聯 전차에 맞서 싸웠다는 逸話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



- 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 ② 영웅의 광장
- ③ 애국시인 Mihaly Vörösmarty像

國土의 면적은 9만여km<sup>2</sup>이지만 人口 1千萬을 약간 넘는 小國이면서도 文化藝術은 상당 수준에 있었고 그들은 조상이 아시아인이란 것을 자랑하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 모양도, 특히 여자들의 얼굴은 영락없는 아시아인들이다.

다뉴브江이 首都의 中央을 흐르는데 한쪽을 Buda라고 하고 다른 쪽을 Pest라고 한다. 다뉴브江엔 現代式의 많은 橋脚이 걸려 있고 Buda쪽 구릉엔 옛 王宮이 있으며 博物館과 각종 記念碑나 조각들이 많고, 古色이 창연한 城郭이 現存해 있다. Pest쪽은 주로 商街가 번창해서 인파가 들끓는다.

국립박물관, 東洋미술관, Buda王宮, 국립공원, 국립경기장과 수많은 숲이 우거진 언덕과 舊敎의 聖堂들, 도도히 흐르는 다뉴브江은 묵묵히 유럽의 風雲과 歷史를 지켜보며 말없이 흐르고, 江上엔 많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었다. 전철과 시내 트로리버스는 특색 있고 길손의 흥미를 자아낸다.

맥도날드햄버거가 상륙해서 人山人海를 이루며 일렬로 서서 기다린다. 우리도 점심으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사들고 다뉴브강변 의자에 앉아 건너편 Buda왕궁과 언덕 위의 독립기념상을 보면서 따뜻한 햇볕에 감상적인 旅行人이 되었다. 마침 東洋人 學生 7, 8명이 떼를 지어 지나가는데 한국말을 한다. 나는 놀라서 한국 학생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들도 놀라서 "어마 할아버지 한국인인가요"하면서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선 금년에 배낭族으로 世界各國으로 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2만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도 헝가리로 오는 기차속에서 서로 만나 부다페스트에선 8명이 단체로 구경을 하고 오늘밤에는 각기 行先豫定地로 떠나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의 각 대학교 학생들로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하기에 學校와 科를 물어보았더니 그속에 弘大 建築科 2學年 學生도 있었다. 내가 學校에 나간다가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모두가 반바지에 룩색을 지고 있다. 전형적인 배낭族 차림들이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런 일을 했어야 했는데 政治하는 사람들이 安保니 뒤편해서 學生들의 旅行을 禁했던 것으로 금년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늦은 감은 있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旅行上의 주의사항이나 요령을, 특히 헝가리에서는 집시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미리 조사해 가지고 다니던 歐羅巴各國의 우리 公館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하나씩 사서먹이고 헤어졌다.

대견스러웠다. 떼를 지어 조잘대며 손에 地圖들을 들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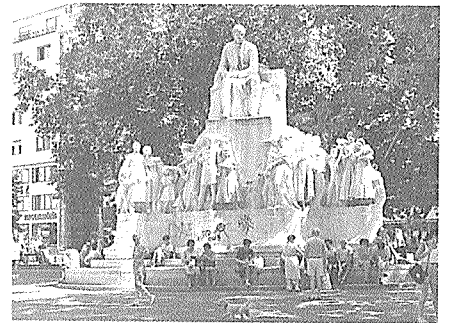
헝가리에서, 그것도 다뉴브강변에서 만나다니 가슴 뿌듯했고 마음이 든든한 것 같은 충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筆者가 이때까지 50여개국을 旅行하면서 한번도 우리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外國의 학생들만 수없이 만났던 經驗에서 이젠 世界 到處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壯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다 國力이란 것인가 보다! 그들은 各國의 人文과 經驗, 歷史, 文化 등 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視野가 넓어지고 자기 位置를 設定할 수 있다는 것과 젊음의 낭만을 알게되는 것이다.

헝가리란 그 國名부터가 낭만적이다. 그 나라의 民族音樂家인 리스트의 헝가리狂詩曲, 幻想曲 등은 우리들의 귀에 낯익은 곡들이고 어딘가 哀愁에 찬 그런 곡들인 것은 다 알고 있는 터이다. 하루는 호텔 대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새빨간 짧은 조끼를 입은 5인조 室內樂團이 예의 헝가리음악을 손님들 사이로 다니면서 演奏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박수와 돈을 던져주었다. 이번 여행중 가장 旅情이 넘치는 저녁이었다. 특히 여러 곡이 연주되다가 筆者도 잘 알고 중얼거리던 Hungarian Love Story No. 5를 연주할 때는 박수가 요란했다.

다음 몇 곡이 연주된 다음 느닷없이 日本曲인 「荒城의 달」과 「사꾸라 사꾸라」라는 곡이 연주되어 나는 기분이 언짢고 不愉快했다. 그때 옆의 아내가 “우리 음악을 아느냐고

물어보라”고 한다. 나는 쉬는 시간에 樂團長을 불러서 韓國曲을 어떤 것이든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즐거웠다.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달라. 귀국하면 우리 곡의 樂譜를 보내 줄테니 여기서 연주하면 日本曲보다도 더 훌륭할 것이고 우리 곡은 헝가리곡과 비슷한 점이 많으니 쉽고 어울릴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는 고맙다고 하면서 곧 그 자리에서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었다. 나는 속으로 「荒城엠티」나 「울밑에 선 봉선화」, 「아리랑」 등을 이들이 室內樂으로 編曲해서 연주하면 後日 韓國人이 이 호텔에 들리면 그런 음악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日記冊 속에 간직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 헝가리로 이제부터 旅行하는 韓國人에게나 外國 觀光客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一舉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그들의 조상은 아시아인이다. 세계의 Magyar인 1천4백만중 약 1천만명이 헝가리에 살고 있다고 한다. Magyar인은 원래 우랄산맥 동쪽에서 遊牧을 하던 流浪族이었다. 아르파트추장에 이끌려 시작된 民族의 大移動 때 이곳에 定着했고, 9세기에 헝가리 평원에 定着, 11세기에 王國을 건설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獨逸에 合併되기도 했고 50만이상의 戰死者를 낸 몽땅한 아시아의 遊



牧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民族이다.

1956년에는 國內 動亂이 있어 2개월간의 內亂을 겪었으며 蘇聯에 항거해서 싸우기도 했다. 90%이상의 國民이 카톨릭신자이고 中世 이후 거대한 성당의 건축이 대단했고 현재의 부다페스트의 스카이라인도 성당들의 돔과 지붕선으로 이루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건축은 한때 동로마제국 때부터 Neo Gothic Style이 많고 共產國家가 된 이후론 自由陣營과의 斷絶로 建築文化의 표정은 전혀 交換되지 못했고, 그래도 東歐圈에서는 가장 개방된 편에 속해 現代建築 중에는 제법 西歐의 現代建築을 연상케 하는 것이 시내에 가끔 눈에 띄인다.

도시는 활기에 넘쳐 흐르고 시민들의 복장에도 色彩感이 농후하다. 가끔 거리의 모퉁이엔 초상화 그리는 거리의 畫家들이나 짚시들의 哀愁된 음악과 긴 차마를 휘날리는 여인의 춤추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포도주의 名產地이고 호맥과 사탕무우나 옥수수도 다뉴브강변의 평원에서만 난다. 도처에—西歐各國이 다 같지만—숲이 우거지고 광장이나 공원이 많아서 都市空間이 넉넉한 것같이 보인다. 전철과 트로리전차와 버스, 택시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 나라의 出入國도 역시 각 共產國家와 동일하다. “IBUSZ”가 유일한 관광기관이다. 모든 외국인 출입국은 “IBUSZ”를 거쳐야만 한다. 나는 서울에서 비자를 얻어가지고 왔기에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멀리 우랄알타이산맥을 넘어 東方의 草原에서 Scythai 문명에 젖어 있던 東洋族 Magyar인들이 이곳 다뉴브강변의 平原에 정착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무 그늘이나 집 문 앞에서 멀리 東方의 하늘을 쳐다보며 색 실로 繡를 놓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東洋의 情趣 그대로이고 길손을 감상에 짓게 하는데 충분하다.





④

現代建築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으며 유고와 같이 蘇聯의 構成主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알팍한 사이 비포스트모던과도 같은, 構成主義를 이해 못하는 우리 눈에는 어색하고 西歐의 흉내같은 일회용 비닐우산 같은, 요란하고 괴상한 조형의 現代建築도 눈에 많이 띄었다. 역시 동로마제국시대부터 건축한 중세기의 규모가 거대한 성당이나 왕궁, 國會議事堂, 城郭들은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도 남는다.

헝가리는 체육에 열을 내고 있다. 筆者가 留宿한 호텔이 스포츠센터의 부근이어서 아침 산책에 체육시설을 돌아보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교육에 관한 조각들, 시설 규모의 거대함, 각종 Monument들의 藝術性, 광활한 잔디밭,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에 대한 관심, 특히 小學校의 體育熱은 미래를 향한 國民 體育 教育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 ◆ 독일

8월 16일 4일간 정든 부다페스트를 떠나서 Lufthansa機로 뮌헨에 도착했다.

다음날 西獨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의 長男아이가 留學중에 있어 아내가 꼭 만나고 가자고 해서 들렀는데, 學位論文의 최고의 段階인 세미나(Tubingen)에 참석중이어서 토요일 아침에야 올 수 있다며 그의 代父인 김씨가 일부러 뮌헨에 와 자기 차로 시내 各處를 구경시켜 준다고 했다.

나는 뮌헨은 수차 왔다갔으니 「암록강은 흐른다」를 쓴 李彌勒씨의 무덤을 찾기로 하고 꽃을 사들고 郊外로 나갔다. 김씨도 그 위치를 몰라서 물어 물어 市立 公園墓地에 가서 용케도 찾아냈다. 빈약한 墓石엔 그의 恩師인 獨日人 敎수가 어설픈 漢字로 李儀景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 아래에 『Dr. Mirok Li 1899~1950』이라고만 적혀 있는 빈약한 묘지였다. 담쟁이가 碑石을 덮고 있었고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異域萬里 他鄉에서 독어를 공부, 독일어로 「암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을 썼고, 全惠隣 등 개화시기의 新女性들과 함께 문학과 미술을 공부한 모습을 생각하니 아득한 옛 이야기만 같다.

그들이 자주 모여서 鄉愁를 달렸다는 레오 파드街의 Sea Rose란 Cafe에 들러서 代父 김씨와 아내는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슈바빙

일대의 그 옛날 그들이 배회하던 거리를 우리 일행도 비를 맞으며 걸었다.

代父가 다니던 뮌헨대학 식당에서-방학중인데도 外國학생이나 內國학생들 대부분이 남아 공부하고 있었다-代父의 학생표로 점심을 먹었는데, 성균관대를 졸업한 梁君과 서울대를 나온 金君도 우연히 만나서 代父가 소개와 인사를 시켜주었다. 특히 梁君은 李彌勒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이복에 아직 있다는 것, 사위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 全惠隣의 죽음은 자살로 되어 있지만 凍死였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유학생들과 敎민(몇 안되지만)들이 墓地管理費 등을 걱정하고 있으나 형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국식료품점 金씨가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까지 했다.

代父와 梁君은 학교를 안내해 주었다. 學校 內部의 비에 젖은 보도블럭 위에는 알루미늄판으로 된 신문기사나 뼈라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것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事緣이 있었다. Geschwister Scholl 남매 학생이 反나치 뼈라를 뿌리다 敎수형 당한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뮌헨 대학생들은 大學名을 Scholl대학으로 改名하고 자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Scholl남매의 사건과 反나치 大學地下團體인 White Rose는 뮌헨대학의 큰 사건이며, 이를 이끌어간 Kurt Haber敎수도 敎수형을 당해 현재 大學廳下壁에 Haber敎수의 튀어나온 눈을 가진 半面과 쇠갈고리로 긁어버린 것 같은 銅製肖像이 박혀있는 것이다.

—東歐旅行중에 西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李彌勒씨에 대한 國內 文人들의 무관심과 문화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따지고 싶고, 과대망상증 환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뮌헨에서 7명의 동지들과 나치당을 창설하여 2차대전을 일으켰으나 한 대학의 정신과 용기가 그 絶對勢力과 맞서 항거했다는 점, 東西獨의 통일에 대한 정보나 현실이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본 그런 것이 아니고 現地の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 西歐에 번지는 “누리스트”들의 문제며 Nymphenburg宮殿의 哀話등을 꼭 짚고 넘어 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

이번 여행중 가장 감명 깊었던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建築的인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인 李彌勒선생의 이야기를 韓國식료품점 김씨에게 들었는데 서울 誠信大의 정교수가 2001년

까지의 墓管理費를 墓地管理事務所에 私費로 내고 있다는 점등을 알고 귀국해서 정교수와 전화로 확인을 했고 언젠가 만나서 자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타 뮌헨에서의 이야기는 나의 장남이 조사해 알려준대로 간략하게 옮겨볼까 한다. 고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獨逸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는 「BROCKHANS 百科事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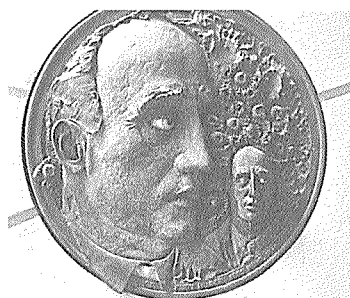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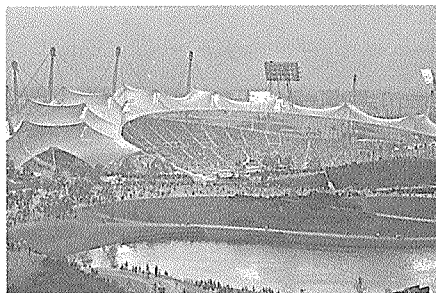
### ▶ Geschwister Scholl件

Hans Scholl과 Sophi Scholl은 뮌헨대학의 학생으로서 오빠는 醫學을, 누이동생은 生物學과 哲學을 전공하던 중 1942년~43년 Weisse Rose라는 反나치結社인 지하학생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그들의 精神的 求心点인 Kurt Haber교수(철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항거운동을 했다. 學校 區內에 反나치 罷라를 뿌리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943년 2월에 교수형을 당했다. Haber교수도 정체가 드러나 역시 同年 7월에 교수형을 당했다. 그들은 주로 히틀러의 國家社會主義(나치)정권의 독재성을 비판하고 獨逸의 윤리적인 새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註記(나의 장남의 의견)-나치정권하에서 全獨逸 국민이 지지했고 狂의인 충성을 다했으니 일부 극소수의 反나치인들을 찾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獨逸이 반성하고 새로운 自由民主主義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이들의 항거는 비록 규모는 적었지만 국민에게 준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역사의 맥을 잇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만약 지식인들의 나치에 대한 이 정도의 자발적인 항거마저도 없었다면 독일 역사에서 1933~45년에는 空白期로 남아서 단지 어떤 미치광이에 홀린 시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日帝時代에 우리가 항일운동을 하던 志士들이 없었다라면 그 기간의 우리 역사는 空白期가 되어 民族史에 主體가 없었을 뻔한 것과도 흡사하다.

### ▶ Nymphenbrg(뉘펜부르크)

뮌헨에 있는 Bayem왕의 궁전으로 1664년에 건축된 아름다운 궁전인데 그후 개축되어 현재에 이른다. 정원은 이태리풍으로 했다가 1715년 프라하인 Carbonet(Le Notres의 제자)에 의해 불란서식으로 바뀌었고 19세기 초에 와서 다시 영국식으로 바뀌었다. 건물



- ④ 부다페스트 부다 언덕의 야경
- ⑤ 李儀景(彌鞠)의 묘에서
- ⑥ 올림픽 경기장
- ⑦ Kurt Huber교수의 초상

은 Karl왕 시대의 로코코식으로 개축했다. - 이 아름다운 로코코식의 궁전과 공원은 숲이 우거지고 아름답기 그지 없다. 뮌헨시민들의 위안처가 되고 관광명소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후일 이미룩씨의 묘件은 문화부에 건의해서 영구묘지관리비를 우리 공관을 통해 협조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그 옛날 타향에서의 한사람의 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바이다.

8월 20일 폐청. 장남의 친구인 유학생 송씨

가 아침에 느닷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2시간 정도 가면 알프스連峯이 있으니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 3,400m 고지까지 Incryin에리베이터, 케이블카 등으로 한걸음도 걸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장관이었다. 빙하의 흔적이 역력하고 알프스의 連峯의 만년설이 반사한다. 대자연의 웅대함과 장엄함에 인간에 존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병으로, 기압의 차가 있을 것으로 미리 구급약을 준비해 가지고 갔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정상적인데 더욱 기뻐다. 여행 출발시 擔當醫인 현양대 김정현박사의 주의사항을 지켰고 구급약도 타가지고 왔으나 아무런 탈도 없고 식욕도 왕성하니 즐겁기만 했다. 아내도 처음하는 긴 여행이라 신이 났고 즐거워했다. 우린 천생연본인가 보다. 나는 아무래도 여행체질인가 보다. 여행만하면 생기가 솟아나니 말이다.

### ◆ 歸路

8월 23일 뮌헨에서 스위스 쥐리히로 갔다. 맑은 공기의 나라요 조용한 나라이다. KAL이 서울까지 운항하기에 쥐리히로 갔을 뿐이다. 고보정이란 우리 음식점은 시내에서 10개 유명 음식점중 하나로 꼽힌다. 오랫동안 김치와 빈대떡에 된장찌개까지 먹고나니 살 것만 같다. 고국엔 그 지루했던 장마가 끝났는지? 더위는 좀 가셨는지 궁금하고 외손녀 녀석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아! 나도 70이 넘었으니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진다. 내일이면 긴 여행을 끝내고 서울에 갈 것이다. 목욕을 하고 스위스의 山氣를 드러마셨다.

별고없이 무사한 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더니 親友 이해성군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북경에선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 관리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초청장이 북경시 부시장(건설담당)에게서 와 있었으나 학교가 개강했고 사위를 보고 또 여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건강에 무리해서도 안되겠다고 해서 정중한 인사와 불참의 의사를 전하고나니 마음이 펑 가벼워진다. 인명은 재천이라 했다. 이 글을 나의 벗 이해성군의 명복을 비는 데 바친다.

白露 前日 안산에서